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

행정안전부, 온오프라인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 위해 도입

올해 공무원증·내년 운전면허증·내후년 장애인등록증 확대

올해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전격 도입된다.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을 위해서다. 모바일 신분증은 올해 공무원증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운전면허증, 내후년에는 장애인등록증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시작은 온라인 상 개인의 신원증명"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견인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하고 앞으로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신분증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청사와 사무실을 출입할 때 모바일공무원증이 활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휴대폰 개통이나 주민센터 민원신청과정, 편의점, 주점 등에서 성인여부 확인 등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할 수 있다.

내후년부터는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을 통해 지하철, 전용 콜택시, 공용주차시설 이용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으로 늘리고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된다.

국민 개개인에 맞춘 AI기반의 국민비서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상담365챗봇도 올해 도입된다.

올해 도입되는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이나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윤 차관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정부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제공)

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광주시, 모든 시내버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광주시는 올해 모든 시내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53대의 시내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691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설치가 마무리되면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1044대)에 영상기록장치가 운영된다.

그동안 운영된 영상기록장치는 노후화나 고장으로 불체의 식별이 어려웠으나, 새로 설치한 CCTV는 기준 4채널에서 7채널로 카메라 감시기능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차량내부 승객 안전, 운전원 안전보호, 차량외부의 사

고위험 병지 등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시내버스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확진자, 접촉자 등의 이동동선을 신속히 파악해 교통안전 안내문자 발송, 언론매체 공개 등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노선 운행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내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표고버섯·귀리 종균된장 제조 특허기술 민간에 이전키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센터장 신삼식)는 장흥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강진 특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한 된장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제품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표고버섯 종균된장 제조방법 특허기술은 장흥군의 사회적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장흥식품(대표 천정자)에, 쌀귀리를 활용한 된장 특허기술은 강진군의 마을기업인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대표 최향심)에 각각 기술이전했다.

장흥은 전국 건표고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항암, 항콜레스테롤, 고혈압 예방 등 다양한 약리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리는 다른 곡류에 비해 필수아미노산과 베타글루칸 함량

이 높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으며 강진군에서는 쌀귀리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전통된장 유래의 단백분해효소 활용이 우수한 특허 바실러스균을 이용해 나트륨 함량은 낮지만 품질과 면역 활성이 우수한 표고버섯 된장과 귀리 된장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기술은 전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2019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다.

신삼식 센터장은 "이번 특허기술 이전을 통해 전남 발효식품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사회적기업의 식품 분야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구, 무등파크맨션 음식물처리감량기(RFID) 설치

광주 동구가 '2020년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쓰레기 5% 감량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산수동 무등파크맨션에 음식물 처리 감량기(RFID)를 설치했다.

이번 감량기 설치는 지난 5월 지원동 백조아파트에 설치한 아래 두 번째로 공동주택에 설치한 것이다.

기존 음식물 처리 방식은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120ℓ 수거용기에 보관 후 수거차량이 음식물처리 지원화시설로 운반해 가는 시스템이었다.

서구, 건강한 서구가 좋다…우리동네 건강지도 발간

광주 서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동별 건강지표를 활용한 우리동네 건강지도 '건강한 서구가 좋다'를 발간했다.

지역사회건강통계는 2008년부터 매년 255개 자치구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까지 생산되는 건강통계로 읍면동 단위까지는 생산되지 않았다.

이에 서구는 동네 지역주민의 맞춤형 보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지도 플랫폼 계획을 수립, 최근 5년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토대로 건강 습관, 만성질환, 정신 건강 등 37개 건강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건강지도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흡연, 음주,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11개 건강지표의 정보가 담겼다.

남구, 100분 live 콘서트 신개념 청렴교육 실시

광주 남구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별주부전 등 신개념 청렴교육을 선보인다.

남구는 23일 "청렴문화 확산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청렴교육을 오는 26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신규 임용된 공직자를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구의원 등 1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 특례융자 지원

광주 북구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융자'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무 특례융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례융자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광주은행 전 지점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라 담보 없이 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야기꽃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광주 광산구이야기꽃도서관이 '2020 인문독서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시민 인문정신 고양과 독서문화 확산 프로그램. 이야기꽃도서관은 4월,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모집에 나섰다.

아카데미 주제는 <먹고 사는 우리를 위한 보통의 인문학>으로, 6/25~9/24일 총 15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강연은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6/25~7/23일 '음식, 인문학으로 맛보다', 2부는 7/10~8/14일 '경제, 인문학으로 통하다', 3부는 8/27~9/24일 '어른, 인문학으로 사유하다'이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긍지 범안이 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유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동복남에서 제작한 웹툰입니다.